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国家“十二五”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规划项目
民族文字出版专项资助项目

투자족

土家族

Tūjiāzú

편자 장금수 (투자족)

역자 김상녀



료녕민족출판사
외국어교학과 연구출판사

© 金尚女 2014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有限责任公司 2014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土家族：朝鲜文 / 张锦秀编；金尚女译. —沈阳：
辽宁民族出版社，2014. 5
(民族文化经典故事丛书)
ISBN 978-7-5497-0796-6

I. ①土… II. ①张… ②金… III. ①土家族—民族
文化—中国—少儿读物—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K287.3-49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4) 第 115397 号

土家族

TUJIAZU

出版发行者：辽宁民族出版社

地 址：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 25 号 邮编：110003

印 刷 者：沈阳海世达印务有限公司

幅面尺寸：180mm×240mm

印 张：5

字 数：40 千字

印 数：1-1500

出版时间：2014 年 5 月第 1 版

印刷时间：2014 年 5 月第 1 次印刷

责任编辑：张学林

封面设计：杜 江

责任校对：李 京

标准书号：ISBN 978-7-5497-0796-6

定 价：18.00 元

法律顾问：陈 光

版权专有 侵权必究

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出版社联系调换

网址：www.lnmzchs.com

淘宝网店：http://lnmz2013.taobao.com

举报电话：024-23284336

邮购电话：024-23284335

联系电话：024-23284340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편집위원회

주편

왕천근

부주편

장해양

학상근

편집위원회성원(가나다 순)

곽우과

두얼버타이(몽골족)

리소빙

푸즈다링(이족)

샌미시누(위글족)

석국용

장금수(투자족)

전산천

정 아(회족)

황 연(거로족)

양 화

웅덕정(푸미족)

왕 리(만족)

왕 봉(바이족)

왕효징

위 평(짱족)

왕해연(창족)

심고전문가(가나다 순)

김여빈(회족)

송 전(몽골족)

수 칭(몽골족)

장약박(몽골족)

왕철지(몽골족)

서 언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뭇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좡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좡족, 요족, 바이족, 투자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외족, 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족, 다우르족, 무로족, 창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양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통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 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녕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어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慕)” 경마에서 운남 시쌍반나 타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싸르왕전》에서 리강 량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짱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툽판 포도골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둥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국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 “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 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발전을 주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 편찬위원회

목 록

제1장 투자족의 역사적유래

- 투자족의 기원에 관한 전설 / 9
- 세습추장의 이야기 / 17
- 벼모물 길기—벼농사의 시작 / 19

제2장 투자족의 생활습관

- 이슬치마의 래력 / 21
- 앞치마의 이야기 / 31
- 흰 머리수건을 두르는 유래 / 35
- “귀떡”을 먹는 전설 / 39
- 조각루에 관한 전설 (1) / 43
- 조각루에 관한 전설 (2) / 47

제3장 투자족의 레의와 풍속

- 딸을 낳으면 모란꽃을 심는 풍속의 유래 / 49
- 쌍거나와 빠리눔의 이야기 / 53
- “앞당겨 설쇠기”의 래력 / 57
- 우왕절의 전설 / 61

제4장 투자족의 신앙

백호신에 관한 전설 /65

매산신에 관한 이야기 /67

제5장 투자족의 문화예술

손짓춤의 유래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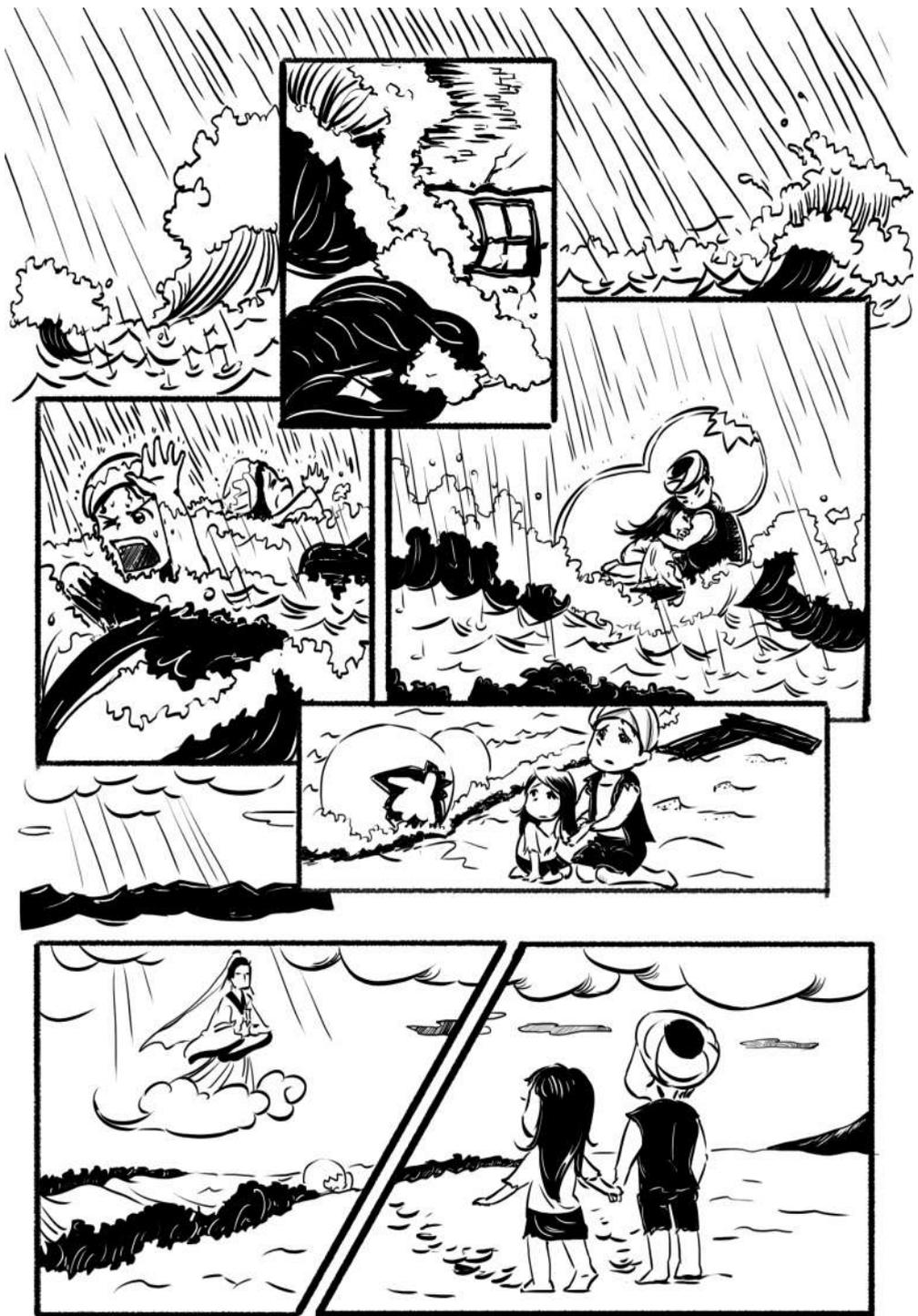
토배기나팔의 래력 /71

씨란카푸에 관한 이야기 /75

제6장 투자족의 성씨

전씨와 탁씨의 유래 /77

참고문헌



제1장 투자족의 역사적유래

투자족은 “삐쯔카(毕兹卡)라고 자칭하면서 “본지사람(本地人)”이라고 부르기 좋아하는데 고대 파인(巴人)의 후예들이다. 예로부터 투자족은 “투인(土人)”, “투민(土民)”으로 불리웠고 청나라때에 와서는 “투자”라는 칭호가 붙기 시작하였다. 2000년 제5차 전국인구조사의 통계에 의하면 투자족의 인구는 800여만명에 달하였는데 중국의 여섯번째로 큰 소수민족으로서 주로 호남성의 상서(湘西)투자족묘족자치주, 호북성의 악서(鄂西)투자족묘족자치주에 분포되어있으며 사천성과 귀주성의 부분지역에도 분포되어있다.

투자족은 어떻게 산생했을까? 투자인의 기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신화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투자족의 기원에 관한 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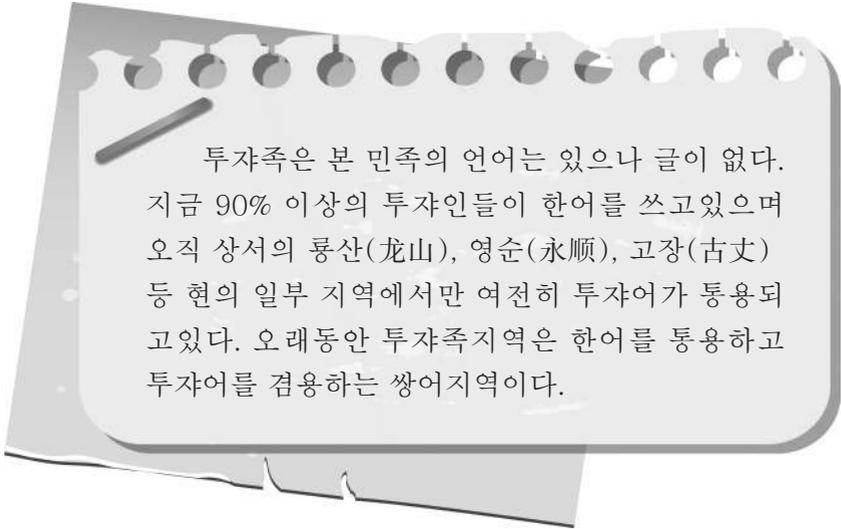
먼 옛날 하늘에서 홍수가 터져 온 대지를 침몰해버렸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말았는데 오직 오누이 한쌍만이 퇴공(雷公)이 준 조롱박안에 숨어서 살아남을수 있었다.

홍수가 지나간후 관세음보살이 오누이에게 말하였다. “땅우에는 너희 오누이 밖에 남지 않았구나.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는 안되는것이니 인류의 장래를 위하여 너희 오누이가 혼인을 하여 후대들을 번성시키도록 하여라.” 오누이끼리 혼인을 하라는 말에 둘은 죽어도 싫다고 잡아떼였다. 관세음보살은 하는수 없이 “정 그렇다면 하늘의 뜻에 따르는게 어찌냐. 하늘의 뜻과 맞는다면 너희들은 혼인을 해야 하느니라.” 하고 말하였다. 오누이는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관세음보살이 이어서 말하였다. “이제 매돌 두짝이 서로 다른 산으로부터 굴러내려올것이다. 만약 두 매돌이 한데 합쳐진다면 너희들은 혼인을 해야 하고 합쳐지지 않는다면 하늘이 혼인을 하지 말라는 뜻이니라.” 오누이는 머리를 끄덕였다. 이윽고 매돌 두짝이 두 산으로부터 굴러내려오더니 산밑에서 정말로 한데 합쳐지었다. 관세음보살이 그것을 보고 “너희들도 보았지? 하늘이 너희들더러 혼인을 하라는것이니 이제 하늘의 뜻에 따르거라.” 하고 말하였다. 오누이는 그래도 동의하지 않았다.

관세음보살은 또 빨간 비단띠 두토막을 꺼내들고 오누이에게 “그럼 이렇게 하는건 어떠냐? 너희들은 이 빨간 비단띠를 각각 하나씩 가지고 하늘로 던져보아라. 만약 이 두토막이 서로 이어져 다리가 된다면 그것은 하늘이 혼인을 하라는 뜻이니 더는 거역하지 말거라.” 하고 말했다. 오누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들이 빨간 비단띠를 제각기 하늘로 힘껏 던졌더니 두토막의 비단띠는 신기하게도 한데 이어져서 다리가 되었다. 관세음보살이 그들에게 혼인할것을 재촉하자 둘은 그래도 혼인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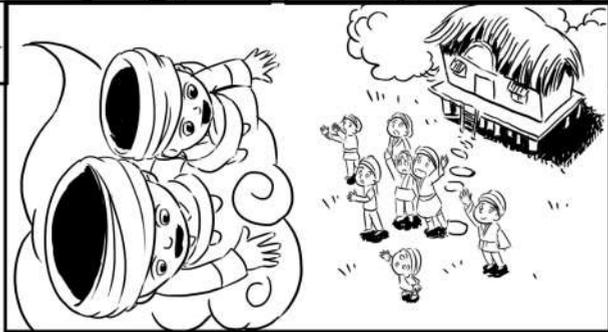
투자족은 본 민족의 언어는 있으나 글이 없다. 지금 90% 이상의 투자인들이 한어를 쓰고있으며 오직 상서의 룡산(龙山), 영순(永顺), 고장(古丈) 등 현의 일부 지역에서만 여전히 투자어가 통용되고있다. 오래동안 투자족지역은 한어를 통용하고 투자어를 겸용하는 쌍어지역이다.



관세음보살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에 큰 나무 한그루가 있다. 너희들은 앞뒤로 서서 나무를 에돌며 계속 뛰거라. 돌고 돌다가 만약 얼굴을 마주치게 되면 이것은 하늘이 혼인하라는 뜻이니라.” 오누이는 나무를 에돌며 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뛰니 아무리 뛰여도 얼굴을 마주칠리가 없었다. 조급해난 관세음보살이 오빠에게 말하였다. “넌 뛰는 방향이 틀렸구나, 돌아서서 뛰어야 한다!” 오빠가 얼떨결에 뒤로 돌아서자마자 녀동생과 얼굴을 마주치고말았다. 그리하여 오누이는 하늘의 뜻에 따라 할수 없이 혼인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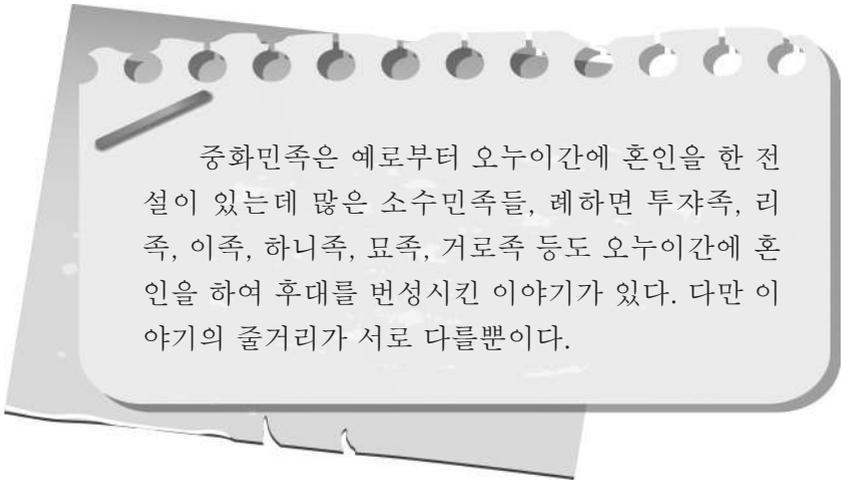
오누이가 혼인을 한후 녀동생이 9개월동안 임신하고 10개월만에 낳은것은 글썄 피덩어리였다. 그들은 상심하기 그지없었다. 관세음보살은 그 피덩어리를 칼로 열여덟덩어리로 나눈 다음 그것들을 흙으로 싸서 열여덟그루의 나무아지에 놓아두라고 하여 오누이는 그대로 하였다.

49일이 지난후, 흙으로 싸서 나무아지에 올려놓았던 그 피덩어리들이 신기하게도 모두 산 사람으로 자라났다. 그들은 나무가지에 기대고 자랐기에 등에는 모두 한가닥의 흙이 나있었다. 또 그들은 모두 흙에 싸여 자랐기에 후날 사람들은 그들을 투자인(土家人)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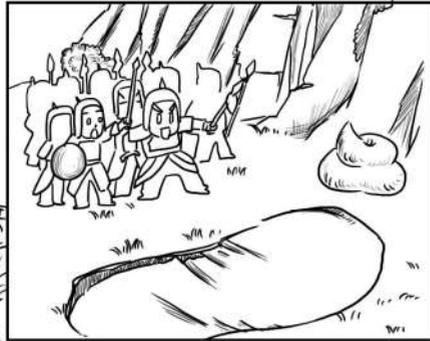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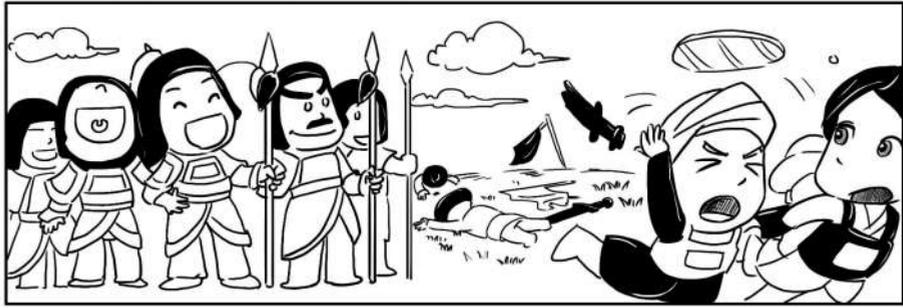


오누이는 나무의 이름에 따라 아이들에게 성을 달아주었다. 녹나무(樟樹)에 기대여 자란 아이에게는 장(章)씨 성을, 오얏나무(李樹)에 기대여 자란 아이에게는 리(李)씨 성을, 박달나무(檀樹)에 기대여 자란 아이에게는 담(潭)씨 성을... 달아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투자족 18대 성씨의 래력이다.

아이들이 다 자라서 어른으로 되자 관세음보살은 오누이를 하늘로 데려갔는데 오빠는 달로 되었고 녀동생은 해로 되었다. 그들은 번갈아 나와 자기들의 자손들을 보살펴주었다. 그러나 녀동생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다. 그녀는 늘 남들이 오누이간에 혼인을 했다고 비웃을가봐 근심했던것이다. 그리하여 관세음보살은 그녀에게 수놓이바늘 한쌍을 주면서 누구든지 그녀를 바라보면 수놓이바늘로 눈을 콕콕 찢어주라고 하였다. 때문에 사람들이 해를 바라볼 때면 알락달락한 바늘에 찢리어 눈을 뜰수 없다고 한다.



중화민족은 예로부터 오누이간에 혼인을 한 전설이 있는데 많은 소수민족들, 례하면 투자족, 리족, 이족, 하니족, 묘족, 거로족 등도 오누이간에 혼인을 하여 후대를 번성시킨 이야기가 있다. 다만 이야기의 줄거리가 서로 다를뿐이다.



남송,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통치계급은 일부 소수민족지역의 소수민족 수령에게 세습적인 관직을 주어 그 민족의 인민들을 통치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제도를 추장(土司)제도라고 하며, 이런 관직을 수여받은 사람을 추장이라고 한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추장제도는 철저히 폐지되었지만 투자족의 민간에는 여전히 추장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세습추장의 이야기

추장은 고대 투자족의 수령이었다. 한번은 추장이 오나라 왕(吳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적들의 군대가 너무 강대했기에 추장의 군대는 번마다 패전하고말았다. 추장은 매우 조급해났다.

하여 그는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적병을 물리칠 계책을 의논하다가 끝내 묘한 수를 생각해내었다. 그들은 우선 마을사람들을 시켜 한자가 넘는 커다란 초신을 삼게 한 다음 병사들더러 그것을 가지고 싸움터로 가는 길에다 커다란 발자국들을 남겨놓게 하여 적들로 하여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거인들이구나” 하는 느낌을 주어 겁을 먹게 하였다.

이어서 그들은 또 대나무통에 흙, 재, 설탕 등을 함께 반죽하여 만든 물건을 길가에 짜놓아 적들로 하여금 거인들이 쓴 똥으로 여기게 하였다. 추장은 또 부하들을 명령하여 바위에다 커다란 주먹과 말발굽의 흔적을 만들어놓게 하였다.

오나라 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 이런것들을 보고 정말로 산우에 거인들이 사는가 여기여 겁을 먹고 재빨리 물러갔다.